

기독교인 유아교사의 기독교유아교육에 대한 인식과 실태 및 교육적 갈등에 대한 탐색적 연구

정 대 현(총신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정 옥 경(총신대학교 기독교유아교육전공 박사과정)

논문초록

본 연구는 기독교인 유아교사들의 기독교유아교육에 대한 인식 및 실태를 알아본 후, 그들이 유아교육현장에서 기독교유아교육을 실시하면서 겪게 되는 교육적 갈등에 대해 탐색하였다.

연구결과 : 기독교유아교육에 대한 인식 및 실태에서 첫째, 기독교유아교육의 개념에 대해 기독교인 유아교사들은 서로 다르게 인식하였다. 둘째, 대부분의 기독교인 유아교사들은 기독교유아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셋째, 조사대상의 과반수 이상이 기독교유아교육을 실천하고 있다고 하였다. 넷째, 기독교유아교육의 실천정도에 대한 자기평가 점수는 낮은 수준이었다. 다섯째, 기독교유아교육의 실천정도에 대한 자기평가 점수는 기독교유아교육관련과목 수강경험이 있는 교사와 없는 교사들 간에 차이가 없었다.

다음으로 기독교인 유아교사가 유아교육현장에서 기독교유아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겪게 되는 교육적 갈등의 양상은 기독교유아교육기관에 재직 중인 기독교인 유아교사들과 비기독교유아교육기관에 재직 중인 기독교인 유아교사들 간에 다르게 나타났다. 기독교유아교육기관에 재직 중인 교사들의 갈등은 '기독교세계관으로 해석한 교육과정'에 대한 불확실성, '신앙 따로, 삶 따로, 교육 따로인 동료들과 원장님', '교육과정도, 자원도 없이 해야 하는 기독교유아교육'으로 나타났고, 비기독교유아교육기관에 재직 중인 교사들의 갈등은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말 못하는 기독교인 유아교사', '나 홀로 해야 하는 기독교유아교육', '학부모가 거부하는 기독교유아교육'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기독교유아교육, 기독교인유아교사, 교육적 갈등

1. 서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태복음 28 : 20)”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믿음을 증언하도록 부름받았다(May, 1988). 이에 기독교인 유아교사들도 예외는 아니다. 기독교인 유아교사들은 자신의 삶과 교직이라는 직업영역에서 그리스도를 증언할 소명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소명감은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소경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온 땅에 전파한 것(마태복음 9:27-31)과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줄을 깨닫고는 동네에 들어가서 그분을 증언한 것(요한복음 4:28-29)처럼 의무감보다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를 체험한 자들이 자발적으로 복된 소식을 전파하는 일에 동참하게 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안에서 얻은 기쁨이나 평안은 감출 수 없어 외칠 수밖에 없고, 말과 생활을 통하여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최광영, 2009).

이러한 소명감으로 기독교인 유아교사는 자신이 속한 교육현장에서 일반적인 유아교육이 아닌 ‘기독교유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기독교유아교육은 기독교세계관을 가진 교사가 유아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게 해주며,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의 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배워 내면화할 수 있도록 돕고, 하나님이 주신 자연세계를 잘 보호하기 위해 자연세계를 잘 알아야 하며,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소질을 발견하여 개발함으로써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자연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다(정희영, 2004). 이를 위해 기독교유아교사를 양성하는 대학에서는 기독교세계관을 가진 유아교사를 양성하려는 목적 하에 교양과목, 교직과목, 전공과목에 기독교관련 과목을 개설하거나 기독교유아교사로서의 자질을 갖추기 위한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이처럼 교과목에 기독교유아교육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범위는 각 대학마다 다르지만, 특히 전공과목에 기독교유아교육관련 과목이 개설된 경우¹⁾ 예비기독교유아교사들은 일반 유아교육과정에서 다루는 내용을 모두 가르치되 기독교세계관으로 재해석하여 기독교유아교육을 실현하는 가능

1) 4년제 예비영유아교사양성대학의 교육과정을 분석한 김미경(2008)의 연구결과 영·유아교사자격증을 받고 있는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기독교대학 19개 4년제 22개학과 중 1개 대학 2개학과에서 ‘기독교아동교육개론, 기독교아동교육과정, 기독교아동교육매체개발, 기독교아동사이버교육’ 등 전공과 관련한 기독교유아교육 과목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을 경험하게 된다.

하지만 기독교유아교사양성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많은 경우 종교교육을 할 수 없는 일반교육체제에 직면한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대한민국 교육법 제2조에서는 교육이념에 대한 목적 규정으로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게 함’을 명시하고 있다. 단군신화에서 비롯된 ‘홍익인간’의 이념은 한국의 건국이념이 되었을 뿐 아니라 교육법의 기본정신이 되어 제4차 유치원 교육과정 이래 2007년 개정유치원 교육과정이 개정된 지금까지도 유치원 교육과정의 성격과 추구하는 인간상, 교육과정 구성방침, 교육목표와 교육내용에 반영되어왔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또한 ‘유치원 지도서 1 : 총론’에 나타난 교사의 역할에서도 교육과정 설계자로서의 교사는 2007년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을 교육과정 설계시 반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실시되는 모든 교육의 기반이 인본주의에 기초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은 홍익인간이념과 한국교육을 관련하여 설명한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9)의 글이다.

이를테면 인간을 신의 영광을 구현하기 위한 존재로 간주하고 신의 권능에 대한 복종을 강요하는 신본주의나, 물질과 돈을 최고가치로 생각하여 인간을 수단시하는 물질만능주의-유물주의 사고는 홍익인간이념에 의해 거부된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이에 따르면 홍익인간이념은 인본주의에 토대를 둔 것(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으로서 교육의 목적설정부터 교육이 실시되는 전 과정에 이르기까지 신본주의에 근거를 두는 기독교유아교육과는 정반대의 입장을 취한다. 따라서 기독교인 유아교사들은 예비기독교유아교사양성대학에서 경험했던 기독교유아교육을 실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종교에 대한 가치중립성’이라는 미명아래 자신의 삶의 기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드러내지 않을 것을 요구받는다.

이처럼 기독교유아교사와 교육현장 간에 서로 다른 가치가 충돌하게 될 때 기

독교유아교사들은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다만 기독교인 기관장이 기독교유아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기관을 설립한 경우 기독교유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정희영(1998)의 연구에서 나타난 바에 따르면 조사대상인 기독교인 유아교사의 절반 이하가 기독교유아교육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으며, 대부분의 교사들이 기독교유아교육의 범위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다. 이후 오미영(2008)의 연구에서는 70% 이상의 기독교인 유아교사가 기독교유아교육의 개념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어 이전보다 기독교유아교육의 개념에 대한 인식 향상되었지만 여전히 기독교유아교육의 개념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는 교사들도 있었다.

또한 기독교사들 간에는 개인차가 있어서 자신이 가르칠 교육과정과 신앙이 별개라고 생각하는 교사도 있고 종교적 가치관을 가르치는 것을 제한하는 공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기독교사는 교육과정 내용이 자신의 신앙과 상충된다고 판단해도 그대로 실행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교사도 있다(임희옥, 유혜숙, 서광일, 김정준, 2010).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기독교인 유아교사들이 기독교유아교육기관에서도 여전히 조직원들과 기독교유아교육의 실천과 관련한 여러 가지 갈등에 부딪힐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여기서 갈등은 상반되는 견해나 입장 등이 경쟁 또는 모순의 상태에 놓여 있어 대립되어 있는 관계나 상호조화를 이루기 힘든 현상을 가리키는 말로서 그 현상이 일어나는 상황이나 관계성에 따라 개인의 내적, 심리적(intrapersonal) 갈등, 개인과 개인 또는 집단간의(interpersonal) 갈등 및 집단과 집단간의(intergroup) 갈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강희천, 1995). 이때 개인의 내적, 심리적 차원의 갈등은 양립될 수 없는 두 종류 이상의 가치나 공존할 수 없는 욕구를 동시에 추구하려는 개인의 심리에서 생겨나는 충돌상태나 긴장 상태를 가리킨다. 그리고 개인과 개인간의 갈등이나 집단간의 갈등은 흔히 ‘사회적 갈등’이라 불리며,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상황과 문제들로부터 야기된다. 이처럼 유아교육 조직내 갈등을 통하여 표출되는 문제는 교육목적을 위하여 수행되는 행위자체를 위협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며(조태영, 2004), 효과적으로 해결되지 못할 경우 교사의 교육적 열의를 상실케하고 결국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을 떨어뜨리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정대현, 정옥경, 2010). 또한 기독교 유아교사를 양성하는 대학에서는 기독교세계관에 입각한 전인적 인격과 전문성을 지닌 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졸업 후 전문성은 있지만 기독교세계관에 입각한 교육을 실행할 수 없다면 기독교유아교사 양성대학의 역할은 교육현장에서 무의미할 것이다.

이에 기독교유아교사양성대학에서 기독교유아교육을 경험한 기독교유아교사들이 취업 후 일반교육현장 및 기독교유아교육현장에서 직면하게 되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그들의 소명과 자발적인 기쁨을 따라 기독교유아교육을 실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독교인 유아교사들이 경험하게 되는 갈등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교사들이 유아교육 현장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현장에서 경험하는 갈등이나 어려움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김희태, 2004).

그러나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기독교유아교사에 대해 이루어진 연구는 일반 유아교사에 대한 연구에 비해 매우 부족할 뿐 아니라 기독교유아교사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이문숙, 2008), 기독교유아교사의 유아 TV시청교육에 대한 인식 연구(방승미, 2003), 기독교유아교사의 신앙과 직무만족도와와의 관계연구(허수진, 2009), 기독교유아교사의 자질 향상에 관한 연구(김동춘, 2007 ; 신원애, 2008 ; 이상욱, 2003 ; 전미라, 2003), 기독교 유아교육기관의 운영 실태에 대한 교사의 인식 연구(김동춘, 2008) 외에 기독교유아교사의 갈등에 대해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유아교육기관이 아닌 초·중·고등과 같은 다른 교육기관의 기독교인 교사에 대한 연구에서도 기독교사의 자질연구(김미희, 2005), 교육과정 재구성연구(이정미, 2008), 교사교육관련연구(김은지, 2005 ; 박병주, 2009 ; 박애규, 2004 ; 오경일, 2007 ; 정유신, 2006)는 있었으나 기독교사의 현장실천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국외에서 이루어진 선행연구를 알아보기 위해 EBSCOhost,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국회전자도서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NDSL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살펴본 결과, 국내와 달리 기독교학과와 관련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으나 기독교인 교사와 관련한 연구로는 미국의 기독교학교에 새로 온 교사의 전이

경험에 대한 사례연구(Harvey & Dowson, 2003)와 기독교학교에서의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위한 기독교사의 전문성 발달에 관한 연구(Constance, 1998) 외에 기독교인 교사가 기독교교육을 실시하는데 따르는 갈등이나 어려움에 대해 연구한 것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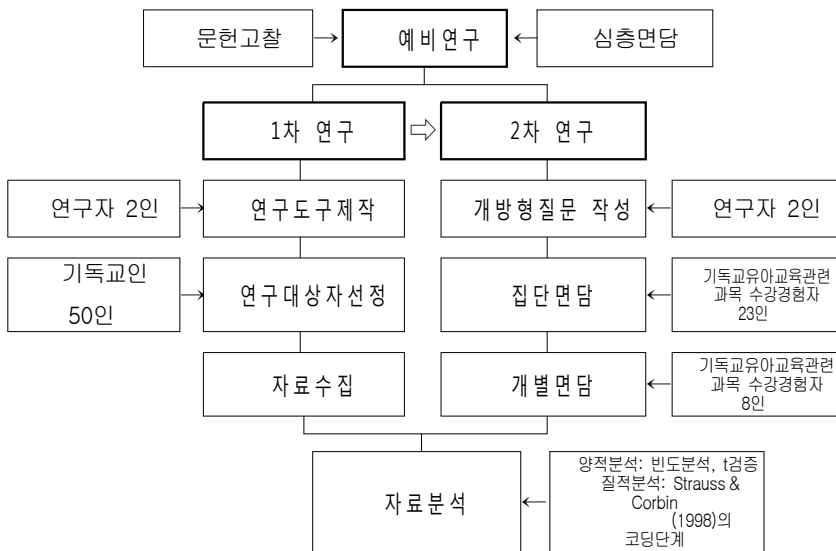
따라서 본 연구는 먼저 기독교인 유아교사들의 기독교유아교육에 대한 인식, 실태가 어떠한지 알아본 후, 기독교인 유아교사들이 유아교육현장에서 겪게 되는 교육적 갈등에 대해 질적연구를 중심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교사의 신념과 교수행위에서의 실천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므로 기독교인 유아교사들의 교육적 갈등을 알아보기에 앞서 그들이 기독교유아교육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실천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알아보는 것은 그들이 현장에서 겪는 교육적 갈등을 보다 깊이 이해하는데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연구는 기독교인 유아교사로 하여금 자신이 교육현장에서 직면하고 있는 갈등의 양상을 바르게 인식하게 하며, 예비기독교유아교사에게는 향후 교직생활에서 경험하게 될 갈등을 간접적으로 경험해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갈등해결방안을 모색하여 기독교인 유아교사로서의 역할을 보다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인 유아교사들의 기독교유아교육에 대한 인식 및 실태는 어떠한가?

둘째, 기독교인 유아교사들이 기독교유아교육을 실시하는데 따르는 교육적 갈등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연구문제에 따라 양적연구와 질적연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1은 기독교인 유아교사들의 기독교유아교육에 대한 인식 및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질적자료분석을 겸한 양적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연구문제 2는 기독교인 유아교사가 현장에서 기독교인으로서 경험하는 교육적 갈등을 알아보기 위해 질적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양적연구가 질적연구의 결과를 도출하는 보조적 성격을 지닌 통합연구모형(Tashakkori & Teddlie, 1998)으로써 연구문제 1은 기독교인 유아교사들이 기독교 유아교육을 실시하는데 봉착하는 갈등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에 따른 연구의 절차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절차 전개도

1. 예비연구

본 연구에 들어가기에 앞서 연구자들은 기독교유아교사, 기독교유아교육 및 교

육에서의 갈등문제에 관한 문헌을 고찰한 후, 2009년 11월 17일에 기독교유아교사양성대학에 재학 중인 예비기독교유아교사 1인과 심층면담 형태의 예비연구를 실시하였다. 예비연구는 기독교인 유아교사가 현장에서 기독교유아교육을 실시하는데서 경험할 수 있는 갈등과 관련한 면담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선행지식을 얻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과정은 본 연구에서 기독교유아교육에 대한 인식과 실태에 대한 설문지를 제작하고 집단면담과 개별면담을 위한 개방형질문을 작성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2. 본 연구

1) 1차 연구 : 기독교인 유아교사의 기독교유아교육에 대한 인식 및 실태

(1) 연구대상

1차 연구의 대상은 서울·경기·인천 소재의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재직하고 있는 기독교인 유아교사 50명이다. 이들 중 26명은 기독교유아교사양성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였으며, 24명은 기독교유아교사양성대학이 아닌 일반대학 및 보육교사양성기관에서 유아교육 또는 보육을 전공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 분	내 용	N	%
경력	3년이하	23	46
	4년이상-7년미만	16	32
	7년이상	11	22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기독교유아교육 수강경험 여부	유	26	52
	무	24	48
현재 근무 형태	유치원	36	72
	어린이집	14	28
합계		50	100

(2) 연구도구

기독교인 유아교사들의 기독교유아교육에 대한 인식 및 실태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문항은 문헌고찰 및 기독교인 예비 유아교사 1인과의 예비연구를 토대로 한 연구자 2인의 논의를 통해 ‘기독교유아교육에 대한 개념, 기독교유아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현장에서의 기독교유아교육 실천여부, 기독교유아교육의 실천에 대한 자기평가’로 구성되었다.

〈표 2〉 기독교유아교육에 대한 인식 및 실태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지 구성

구분	내 용	응답유형	문항수
인식	기독교유아교육에 대한 개념	개방형	1
	기독교유아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진위형	1
실태	현장에서의 기독교유아교육 실천여부	진위형	1
	기독교유아교육의 실천에 대한 자기평가	5점 척도	1
합 계			4

(3) 자료수집 및 분석

최종 구성된 설문지를 2009년 11월 17일부터 24일까지 직접 조사 및 온라인 우편을 통해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 중 개방형질문을 통해 얻어진 기독교유아교육에 대한 개념의 결과는 유아교육 전문가 4인의 논의를 통해 세 차례의 비교·대조의 과정을 거쳐 유사한 유형의 개념끼리 분류한 후 연구참여자들의 언어를 중심으로 개념을 명명하였고, 최종 도출된 6개의 유형에 대한 빈도를 분석하여 양화하였다. 다음으로 기독교유아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실천여부 및 기독교유아교육의 실천에 대한 자기평가에 대한 결과는 SPSS 15.0 프로그램의 빈도분석과 t검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2) 2차 연구 : 기독교인 유아교사의 교육적 갈등 탐색

(1) 연구참여자

기독교인 유아교사의 교육적 갈등을 탐색하기 위한 질적연구에는 1차 연구대상자 중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전공과목으로 기독교유아교육 관련과목을 수강한 경험이 있는 교사 23명이 참여하였다. <표 3>에서 이들이 재직하고 있는 근무기관의 설립이념을 볼 때 기독교유아교육기관이 8곳 있으나, 이 중 사립유치원 또는 사립어린이집의 경우 학부모의 거부와 같은 문제에 부딪힘으로 인하여 현재는 기독교유아교육을 실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였다.

<표 3>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교사	연령	학력	경력	기독교유아교육		현재 근무 형태	근무기관의 설립이념	
					수강경험	유무			
집 단 면 담	교사A	30	대학원재학	4년	유		국공립유치원	일반유아교육	
	교사B	33	대학원재학	8년	유		국공립유치원	일반유아교육	
	교사C	30	대학원재학	6년	유		기독교대학부속유치원	기독교유아교육	
	교사D	39	대학원재학	11년	유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일반유아교육	
	교사E	42	대학원재학	8년	유		어린이집	기독교유아교육	
	교사F	36	대학원재학	10년	유		구립어린이집	일반유아교육	
	교사G	26	대학원재학	4년	유		구립어린이집	일반유아교육	
	교사H	30	대학원재학	5년	유		국공립유치원	일반유아교육	
	교사I	30	대학원재학	7년	유		병설유치원	일반유아교육	
	교사J	27	대학원재학	4년	유		사립유치원	일반유아교육	
	교사L	28	대학원재학	3년	유		구립어린이집	일반유아교육	
	교사M	42	대학원재학	13년	유		민간어린이집	일반유아교육	
	교사N	32	대학원재학	11년	유		사립유치원	일반유아교육	
	교사O	29	대학원재학	6년	유		사립유치원	일반유아교육	
	교사P	31	대학원재학	3년	유		사립유치원	기독교유아교육	
	개 별 면 담	교사Q	32	대학원재학	4년	유		사립어린이집	일반유아교육
		교사R	32	대학원재학	3년	유		사립유치원	일반유아교육
교사S		28	대학원재학	1년	유		기독교대학부속유치원	기독교유아교육	
교사T		28	4년제대학졸	3년	유		교회부설사립유치원	기독교유아교육	
교사U		28	4년제대학졸	2년	유		교회부설사립유치원	기독교유아교육	
교사V		28	4년제대학졸	4년	유		사립어린이집	기독교유아교육	
교사W		28	4년제대학졸	1년	유		사립어린이집	일반유아교육	
교사X		32	대학원재학	2년	유		사립어린이집	기독교유아교육	

(2) 연구절차

본 연구는 기독교인 유아교사가 기독교유아교육기관 또는 비기독교유아교육기관에서 기독교유아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경험하게 되는 교육적 갈등을 알아보기 위해 심층면담의 형태인 집단면담과 개별면담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개별면담은 집단면담에 비해 보다 심층적인 면담을 가능하게 하며, 집단면담은 개별면담에 비해서 심층적인 면담을 하기는 어렵지만 다른 참여자가 이야기하는 도중에 생각나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각기 다른 의견을 도출할 수 있으므로 두 가지 면담방식을 모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이용숙, 김영천 편, 1999).

먼저 집단면담은 학부 또는 대학원에서 전공과목으로 기독교유아교육관련 과목을 수강한 경험이 있는 현장경력 3년 이상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11월 17일에 2회에 걸쳐 실시되었다²⁾. 이때 연구자들은 면담 전에 작성한 개방형질문들을 머릿속에 간직한 채 반구조화된 면담방식으로 면담하였으며, 모든 참여자들이 이야기하도록 격려하되 답변 중에서 더 깊이 파고 들어가야 할 부분에 대해 보충 질문을 해 나가는 구조화된 면담에 가까운 방식을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개별면담은 집단면담에서와 같이 학부 또는 대학원에서 전공과목으로 기독교유아교육관련 과목을 수강한 경험이 있는 교사 8인으로서 11월 18일부터 30일까지 각 1회에 걸쳐 이루어졌다. 이들은 연구자와 라포르 및 신뢰가 깊이 형성되어 있는 관계였기에 비구조화된 면담방식을 통해 기독교인 유아교사로서 겪는 그들의 교육적 갈등을 폭넓고 깊이 있게 제공받을 수 있었다.

수집된 자료는 녹음 후 전사되었으며, 연구자들은 먼저 전체 텍스트를 수차례 읽은 후 Nvivo 8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Strauss & Corbin(1998)의 개방적 코딩(open coding)-중추적 코딩(axial coding)-선택적 코딩(selective coding)단계에 따라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개방적 코딩단계에서 전체 텍스트 중 교사의 갈등과 관련된 부분들을 발췌하여 자료를 요약한 후 각각의 내용에 참여자의 언어를 사용하여 개념화하고, 중추적 코딩단계에서는 각 개념들 간

2) 집단면담 2차시에는 면담대상자 14인 중 주제보자(key informants) 9인만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의 대조와 비교를 통해 유사한 갈등개념끼리 묶어서 수렴하였다. 그러나 선택적 코딩단계에서 이제까지 분류한 갈등범주들을 하나의 체계 속에 정리하는 과정 중에 기독교유아교육기관과 비기독교유아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사들 사이에 갈등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남을 발견하였다. 이에 중추적 코딩단계로 돌아가 기독교유아교육기관에 재직하는 교사들과 비기독교유아교육기관에 재직하는 교사들의 갈등범주들을 구분하여 분류한 후 선택적 코딩단계를 거쳐 각 집단의 최종 갈등 유형을 도출하였다. 이때 분석 초기단계에서는 자료 그 자체의 범주들을 연구참여자들의 관점(emic)을 기준으로 코딩하고, 분석후기단계로 갈수록 연구자의 분석틀에 입각한 외부자의 시각(etic)을 기준으로 코딩하였다.

이러한 분류과정에서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독교인 교사관련 연구 및 교육적 갈등에 관한 문헌고찰을 함께 실시하였다. 또한 최종 갈등유형 도출 과정에서 Denzin(2006)의 분석자삼각분석법(investigator triangulation)에 따라 유아교육 석사학위를 소지한 기독교인 유아교사 2인의 참여를 통해 논의의 과정을 거쳤고, 본 연구의 참여자들로부터 수집된 갈등유형이 기독교인 유아교사들의 교육적 갈등을 잘 나타내고 있는가에 대한 전형성(Typicality)을 검토하도록 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기독교인 유아교사의 기독교유아교육에 대한 인식 및 실태

1) 기독교유아교육에 대한 개념

<표 4>는 개방형질문을 통해 응답된 기독교인 유아교사들의 기독교유아교육에 대한 개념과 빈도를 알아본 결과이다. 기독교인 유아교사들은 기독교유아교육의 개념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신앙을 갖도록 하는 것’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3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기독교세계관으로 일반교육과정을 재해석하여 가르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28%로 많았다. 또한 일반교육과정을

실시하면서 동시에 부분적으로 기독교적인 내용을 가르치는 것, 기독교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하는 것, 그리고 기독교인인 유아교사가 가르치는 교육이 기독교유아교육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각각 8%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포괄적인 선교’, ‘인성교육’,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하는 것’, ‘기독교인으로서 해야 할 마땅한 교육이자 소명’이 있었다.

〈표 4〉 기독교유아교육에 대한 개념

순위	개 념	N(%)
1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신앙을 갖도록 하는 것	18(36.0)
2	기독교세계관으로 일반교육과정을 재해석하여 가르치는 것	14(28.0)
3	일반교육과정을 실시하면서 기독교적인 내용을 가르치는 것	4(8.0)
4	기독교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하는 것	4(8.0)
5	기독교인 유아교사가 가르치는 교육	4(8.0)
6	기타	4(8.0)
	합 계	50(100.0)

2) 기독교유아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표 5〉 기독교인 유아교사의 기독교유아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기독교유아교육의 필요성 인식	N(%)
필요하다	48(96.0)
필요하지 않다	2(4.0)
합계	50(100.0)

기독교유아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조사대상의 96.0%인 48명이 ‘필요하다’에 응답하였다. 이는 <표 2>에 나타난 기독교인 유아교사들의 일반적

특성을 고려할 때 기독교유아교육관련과목 수강경험여부와 관계없이 대부분의 기독교인 유아교사들이 기독교유아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기독교유아교육의 실천여부

〈표 6〉 기독교유아교육의 실천여부

기독교유아교육의 실천여부	N(%)
실천한다	36(72.0)
실천하지 않는다	14(28.0)
합계	50(100.0)

기독교유아교육을 실천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기독교유아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수보다 12명 적은 36명(72.0%)만이 ‘실천한다’고 하였고, 14명(28.0%)은 실천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4) 기독교유아교육의 실천에 대한 자기평가

〈표 7〉 기독교유아교육의 실천에 대한 자기평가

구분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은편	보통	그런편	매우그렇다	합계
N	8	9	21	12	0	50
%	6.0	28.0	42.0	24.0	0.0	100.0

기독교유아교육의 실천에 대한 자기평가를 1점에서 5점 사이로 체크하도록 한 결과,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0%였으며 ‘그런편’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24%, ‘보통’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42%로 나타났다.

5) 기독교유아교육관련과목 수강경험 여부에 따른 기독교유아교육의 실천에 대한 자기평가

기독교유아교육관련 과목 수강경험 여부에 따라 기독교유아교육의 실천에 대한 자기평가점수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이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8> 기독교유아교육관련과목 수강경험 여부에 따른 기독교유아교육의 실천에 대한 자기평가 차이

기독교유아교육관련과목 수강경험 여부	<i>N</i>	<i>M</i>	<i>SD</i>	<i>t</i>
있다	26	3.00	.89	1.37
없다	24	2.67	.82	

2. 기독교인 유아교사가 유아교육현장에서 기독교유아교육을 실시함에 따른 교육적 갈등

연구참여자들과의 집단면담과 개별면담을 통해 그들이 기독교유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겪는 교육적 갈등을 탐색한 결과, <표 9>와 같이 갈등현상이 일어나는 맥락(context)³⁾에 따라 개인적 갈등과 사회적 갈등으로 구분할 수 있었고, 사회적 갈등은 조직 내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조직 외에서 일어나는 갈등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3) 사건이 포함되어 있는 조건적 배경이나 상황(Strauss & Corbin, 1998)

〈표 9〉 기독교인 유아교사의 교육적 갈등

갈등유형		기독교유아교육기관	비기독교유아교육기관 ⁴⁾
개인적 갈등		· 기독교세계관으로 해석한 교육과정에 대한 불확실성	·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말 못하는 기독교인 유아교사
사회적 갈등	조직 내	· 신앙 따로, 삶 따로, 교육 따로인 동료들과 원장님	· 나 홀로 해야 하는 기독교유아교육
	조직 외	· 교육과정도, 자원도 없이 해야 하는 기독교유아교육	· 학부모가 거부하는 기독교유아교육

한편 각각의 갈등유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기독교유아교육기관과 비기독교유아교육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들 사이에 갈등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먼저 개인적 갈등유형에 있어서 기독교유아교육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기독교인 유아교사들은 교육과정을 계획할 때 일반교육과정을 기독교세계관으로 재해석하는 과정의 어려움과 불확실성을 호소하였고, 비기독교유아교육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기독교인 유아교사들은 기독교유아교육을 계획하기도 전에 기독교인이라는 자신의 정체성과 그러한 기독교성을 드러내지 않을 것을 요구받는 기대역할 사이에 충돌이 일어남으로 인한 갈등을 겪고 있었다.

다음으로 사회적 갈등유형 중 조직 내 차원에서는 기독교유아교육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기독교인 유아교사의 경우 신앙 따로, 삶 따로, 교육 따로인 동료들과 원장님의 태도로 인해 갈등하였고, 비기독교유아교육기관의 경우 조직 내에서 기독교인 유아교사 홀로 기독교유아교육을 시도할 수 밖에 없는 현실로 인해 갈등하였다. 그리고 조직 외 차원에서 기독교유아교육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들은 기독교유아교육과정이나 자원이 없이 기독교유아교육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인해 갈등한 반면, 비기독교유아교육기관의 교사들은 기독교유아교육을 거부하는 학부모

4) 여기서 '비기독교유아교육기관'이라 함은 설립이념이 기독교유아교육이라고 할지라도 실제로는 기독교유아교육을 실시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기관을 포함한다.

모의 태도로 인해 갈등하고 있었다. 이러한 각각의 요인에 대해 기독교인 유아교사들의 목소리와 함께 구체적으로 살펴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독교유아교육기관에 재직하는 기독교인 유아교사들의 교육적 갈등

(1) 기독교세계관으로 해석한 교육과정에 대한 불확실성

기독교유아교육기관에 재직하는 기독교인 유아교사들의 개인적 갈등은 일반유아교육과정을 기독교세계관으로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오는 어려움이다. 기독교유아교육은 골로새서 1장 16절⁵⁾의 말씀과 같이 모든 우주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지음 받았으며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유아교육법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한 교육과정 및 보육과정은 인본주의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 유아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일반 유아교육과정을 기독교세계관으로 재해석하는 작업을 시도한다. 하지만 일반교육과정을 토대로 본인의 교육현장에 맞게 교육활동을 계획하며, 이에 더하여 다시 기독교세계관으로 재해석하는 과정은 교사의 역량에만 맡겨지기에 매우 어려울 뿐 아니라 자신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실성을 갖지 못함으로 인해 교사는 심리적 갈등을 겪는다.

현재 기독교 유아교육, 인적, 물적 환경이 다 갖추어진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에서도 어려움이 있어요..(중략).. 저희가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개정된 교육과정에서 기독교랑 관련된 것 빼고 이런 게 아니라 그 교육과정을 기독교 세계관으로 조명하기 때문에 말씀과 일일이 비추어서 재구성을 해야 하거든요? 단순히 자료를 찾는 게 아니라 지금도 저희 반 지금 책 프로젝트를 하는데 어떻게 아이들과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할 것인가? 물론 방법은 많거든요? 과연 그 책에서 기독교적으로 무얼 어떻게 나타낼지, 그게 고민이 되니까 이게 답이 없는 거잖아요. 계속 말씀을 연구하고 해야 하는데 그게 그렇게 쉬운 작업이 아니더라고요. (교사C, 11월 17일, 집단면담)

5)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저도 선생님과 똑같이 거기서 저 혼자 맨땅에 헤딩하는 거니까, C대학부속유치원에서 나온 기독교 유아교육과정 하나 들고 간거예요. 딱 서점에 갔는데 이게 제일 좋다 해서 그거 하나 들고 가서 나름대로 적용해보고 부딪혀보고 하지만 한계성이 있고 진짜 방향성을 모르는 겠는거예요. 내가 진짜 잘하고 있는건가? 그런데 분명 일반교육과는 다른 성경적인 접근을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근데 그렇게 근본적인 문제에 해서 해결이 안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교사P, 11월 17일, 집단면담)

(2) 신앙 따로, 삶 따로, 교육 따로인 동료들과 원장님

사회적 갈등 중 조직 내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동료교사나 기관장의 이원론적 사고로부터 비롯되었다. 이원론은 시각이 분열된 세계관으로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성스러운 것과 세속적인 것’과 같이 현실을 근본적으로 분리된 두 개의 범주로 나눈 것을 말한다(Walsh & Middleton, 1987).

이와 관련하여 먼저 기독교인 유아교사들은 반성적 사고의 과정을 거치며 자신의 신앙과 삶에 대한 분리가능성에 대해 갈등하기도 하였지만⁶⁾, 함께 근무하는 조직원들의 신앙, 삶, 교육이 분리된 태도로 인해 더욱 갈등하였다. 다음의 사례는 동료교사가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을 철저히 분리하여 일반교육과정에 있는 내용을 세속적인 것으로 여겨 교육과정에서 제외시키고, 또 다른 동료교사들은 예배시간에 유아들에게는 ‘바르게 예배드리라’고 하면서 자신들은 다른 일을 처리하고 있는 신앙 따로, 삶 따로, 교육 따로의 태도로 인해 갈등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동료교사가 너무나 흑백논리 짙은 기독교라서 불국사는 미개한 사람들이 만든거라

6) 기독교인교사로서 내가 이거는 교회에서 느꼈던 건데 어떤 교육과정을 제공해야 할지에 대해 기독교유아교육과정과 일반유아교육과정을 어떻게 통합해야 할지 일반유아교육과정을 가르칠 때도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가르쳐야하는데 과연 내 마음속에 확신이 있다. 내가 가르치는게 과연 맞는걸까? 내가 아이들에게 교육하고 돌아왔어. 그리고 집에 돌아올 때 과연 내 마음속에도 그런 믿음이 있나? 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나? 하는 회의감이 있는 것 같애. 예를 들어 아이들에게 기독교적인 내용을 말할 하면서 뒤돌아서 생각해보면 과연 그렇게 하는게 옳은걸까? (교사R, 11월 27일, 개별면담)

고. 공룡도 되게 싫어해. 성경적이지 않다고 그래서 이번에 공룡하는데 빼자고 ... (중략) ... 그리고 예배를 드려도 한 시간을 드려. 그 사람이 예배를 인도하는데 다른 선생님들이 집중을 안해줘. 나가서 일을 하던지. 프린트 물을 하러 간다던지. 원장님도 안오시고. 기독교인선생님들 자체에서도 기독교교육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없어. 교사들이 필요성 자체를 못느끼는 구나. 다들 주일학교교사인데도 바쁘고 그러니까.. 가위질하고 다른 일해. 기독교인교사라도 예배 일주일에 한번 드리는거 싫어하고 컴퓨터하고 그래. (교사V, 11월 24일, 개별면담)

또 다른 예는 기관장이 기독교인이지만 교육에서는 기독교적인 것을 제외하는 ‘신앙 따로, 교육 따로’의 태도로 인해 기독교인 유아교사가 경험한 갈등하는 내용이다.

기독교 유치원 원감선생님께서 자신의 삶을 얘기할 때만 그렇게 하셨지 접목시키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 생각 때문에 저는, 기독교 유아교사가 되려고 초등학교 6학년부터 생각해서 학교를 가고. 그런데 제가 창조에 대한 찬양을 선택했을 때에 원장님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교사P, 11월 17일, 집단면담)

다음은 기관장의 신앙과 기관운영이 이원론적으로 분리된 모습을 보여준다. 기관장은 교육에 있어서 기독교유아교육을 매우 협소한 의미로 이해하였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번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독교유아교육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기독교인 유아교사와 기독교유아교육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보인다. 뿐만 아니라 기관운영과 행정처리에 있어서 부정직한 방법을 사용하는 등 신앙과 삶이 전혀 분리되어 있는 ‘신앙 따로, 삶 따로’의 모습을 드러냄으로 인해 기독교인 유아교사는 갈등을 경험하였고, 연구참여자의 동료교사의 경우 이를 견디지 못해 이직하였다.

원장님 자체가 기독교유아교육에 대한 의미를 모르는거예요. 선생님들도 인식이 안되요. 원장님은 오리엔테이션 때 기독교유아교육 한다고 얘기해요. 수요일에 예배 드리는게 단체 그걸로 기독교유아교육을 본인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월 외 비율.. 어린이집의 크기.. 교사대 유아 비율.. 제한된 인원이 있는데 그 인원 초과해서. 올라가있는 이름과 실제상 아이들과 숫자가 달라요. 그래서 감사가 나오면

그 애들은 다른 큰 건물로 피신해있어야 해요. 그래서 난 이게 무슨 기독교유아교육 이냐.. 다른 선생님도 여기로 들어왔는데 자기는 투명선있게 처리하고 싶은데 자기는 투명하게 처리할 아무 권한이 없는거야. 원장님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하지 만 자기 선에서 일을 처리해야 하니까 부정직한 일을 해야 하는거예요. 그래서 그게 싫어서 나왔어요. 여기에 와서 너무 회의감이 든다고... (교사X, 11월 30일, 개별면담)

(3) 교육과정도, 자원도 없이 해야 하는 기독교유아교육

기독교유아교육기관이라 할지라도 기독교유아교육을 위한 연구공동체가 마련되 지 않은 경우 기독교유아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일은 교사 개인의 몫이 된다. 일반 유아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각자의 지엽적인 상황에 맞는 교육활동을 계획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연구하는 일이 필요하지만 이때 인터넷, 서적, 교재 등 풍부한 자원을 참고할 수 있다. 기독교인 유아교사가 기독교유아교육과정을 계획 하기 위해서도 이와 같은 자원이 필요하지만, 일반유아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다양한 영역 및 내용요소들을 기독교세계관으로 조명하여 해석한 교육과정자료나 활동자료 등 기독교유아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자원은 손가락에 꼽힐 수 있는 정 도이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유아교사는 교육계획, 학급경영, 부모상담, 문서관리, 실습생 지도, 유아교육기관행사, 현장학습, 기타 일과 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으 며, 기독교인 유아교사에게 주어지는 업무 역시 그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 인 업무에 더하여 기독교유아교육과정을 연구하는 일은 이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이에 기독교인 유아교사는 교육과정 연구의 필요성을 느끼고 연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유아교육과정을 계획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인 자원조차 너무나 부족한 현 실정에 부딪히게 되는, 신념과 실제의 충돌로 인해 갈등하게 된다.

교육과정을 연구하고 노력해야 하는게 많이 필요해요. 근데 유아교사의 입장은 교 육을 위해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요. 필요성은 알고 얼마만큼 내가 연구해야 할지도 아는데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랑 업무여건이 너무 많아서 연구하기가 힘들

어요. 다른 사람들 얘기 들어봐도 그렇고.. 창조에 대해 가르치는데 신학적으로 모호한 부분이 많은 부분을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부분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전화하기도 하는데.. 교사 개인에게 역량이 너무 많이 맡겨져 있어서 성경적으로 해석하려고 할 때 어디서 제공받아야 할지.. 너무 기독교교육과정이 미개척 분야라 교사의 역할이 너무 커서 방대해서. 교사가 한번 잘못 말하면 그게 그대로 전달되니까(교사S, 11월 19일, 개별면담)

공부할 때는 많이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보고 하면 너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막상 현장에 나와보니 기독교유치원이고 기독교유아교육하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왔지만, 여러 가지 커리큘럼을 나 혼자 짜서 할 수는 없잖아요. 유치원 현상황에 맞추어야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기독교유아교육이 뭐가 있을까.. (중략) ... 근데 되게 그 주제를 해나가면서 그런걸 또 생각을 해서 넣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하루하루 월별로 계획을 짤 때 기독교적인 것을 또 생각을 해야 되잖아. 생각을 해야 하는데 힘든거 같애. 일과, 행정업무도 많은데 거기까지 생각을 해서 계획을 짜는게 힘든거 같애. 교사의 노력이 더 필요하겠죠. (교사U, 11월 20일, 개별면담)

2) 비기독교유아교육기관에 재직 중인 기독교인 유아교사들의 교육적 갈등

비기독교유아교육기관에 재직 중인 기독교인 유아교사들의 경우, 기독교유아교육기관에 재직 중인 교사들과는 다른 갈등양상을 나타내었다. 이에 대해 개인적 갈등과 사회적 갈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1)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말 못하는 기독교인 유아교사

비기독교유아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기독교인 유아교사가 느끼는 개인적 갈등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중립적인 교육을 요구하는 일반교육체제로부터 오는 기대역할과의 상충으로 인한 것이었다. ‘교육은 관계의 학문(Mason, 2010)’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유아교육은 유아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생활환경에 대한 경험적인 앎을 통해 유아와 모든 사물 및 개념들과의 관계를 맺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때 기독교인 유아교사는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것을 믿고, 알고 있는 자로서 그가 보기에 유아를 둘러싼 생활환경과

유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분리되거나 어느 하나도 제외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기독교유아교육기관에서는 종교에 대한 가치중립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기독교인 유아교사는 생활환경을 매개로 하여 유아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반응하도록 해야 하는 과정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제외시켜야 하는 갈등을 경험한다. 아래의 사례는 비기독교 어린이집에 재직하는 경력 1년의 기독교인 유아교사가 ‘종교적 색채’를 보이지 않는 조건하에 임용된 후 유아들과의 교육활동 중에 경험한 갈등내용이다.

저같은 경우에는 일반보육기관이다보니 취업면접 때부터 종교적인 색채를 전혀 보이지 않도록 하는 조건하에 임용이 되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기독교유아교육을 억지로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 내적인 어려움이에요. 모든 교육은 교사가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교육철학을 가지고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막상 현장에 나와보니 역시나 기독교 유아교육이라는 한 분야를 배척하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과 산책하면서 ‘우와~ 나무 예쁘다. 저 나무는 누가 만들었어요?’ 라는 질문을 듣게 되는데, 그럴 때 저의 대답은 “하나님이 만드셨지~”가 목까지 차오르는데도, “응~ 누가 만들었을까? 예전부터 있던거야~”등의 대답으로 된다는 것이지요. 이론과 실체가 어려워요~.(교사W, 11월 27일, 개별면담)

기독교 유아교육을 너무 하고 싶었고, 아직도 잊지 않는데 가을에 ‘지구와 우주’단원 하면서 정말 갈등을 느꼈어요. 내가 우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그게 안되니까 물론 사실 부끄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아침 일찍 오는 아이들 데리고 나름대로 시도를 해봤지만 효과적이지는 않았어요.(교사C, 11월 17일, 집단면담)

다음의 사례도 기독교인 유아교사로서 비기독교 현장에서 자신의 기독교세계관으로 조명한 기독교유아교육을 실천할 수 없음으로 인해 느끼는 갈등에 대한 내용이다. 사례에 나타난 바와 같이 기독교인 유아교사는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면서도 종교적인 중립감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에 교수행위에서 하나님과 관련한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여 심리적 갈등을 경험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비기독교 유아교육기관에서 최소 4년 이상의 교직경험과 갈등 끝에 기독교유아교육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실천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방법을 생각하여 실천하기도 한다.

얘기를 많이 하려고해. 우주를 가르친다고하면, 근데 직설적으로 하나님을 소개하지는 못해.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말을 못해. 7세 정도 되면 애들이 하나님의 개념을 알고 있어. 성인처럼 강조를 할 수가 없어. 불교도 알고 있고. 우리나라 역사를 가르칠 때 객관적인 역사를 가르치면서 무슨 병원이 들어오면서 이럴 때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하면서 살짝 끼는 정도지. 벌써 나는 성인한테 전도하는 느낌이라니까. 애들한테 말하는게 부모한테 말하는거 같애. 애들이 하나님은 좋구나 라고만 인식해도 성공한 거라고 생각해. 간증위주로. 객관적인 듯 보이게. 그래서 창조과학회처럼 객관적인 것처럼 해야 해. 그래서 난 기독교유아교사데.. 하는 갈등이 있어. (교사V, 11월 24일, 개별면담)

제 마음 속에서는 사실 그냥 유아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기독교 유아교육을 해야 된다고 항상 그게 나의 비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현실 속에서는 그게 어려운 점들이 있는 거예요. 저도 그 부분을 지난 학기쯤 깨긴 했지만 공립유치원 교사라면 종교적인 중립감을 지켜야 한다는 어떤 의무감 같은게 있어요. 교장선생님도 마찬가지이고, 교장선생님이 항상 수업을 보시진 않지만 동료교사들끼리 조차도 기도를 하면 안되고 여기도 그런 걸 하면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고 어떤 종교적인 걸 내세우지 않는 기관이 공립이기 때문에 그런 의무를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저 역시도 그 때는 개인적으로 느끼는 갈등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4년 동안 기독교 유아교육 기관에서 배웠지만 그걸 실천하는데 조금 어려웠던 점이 나는 공립 유치원 교사니까 안되, 좀 소극적인 방법으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태도적인 부분, 급식 먹을 때 기도한다던지 언행이나 이런 거에 내가 아이들한테 바른 태도를 보여주는 게 내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교사B, 11월 17일, 집단면담)

(2) 나 홀로 해야 하는 기독교유아교육

기독교인 유아교사가 비기독교 유아교육기관에서 경험하게 되는 갈등은 교사들 간의 신앙공동체 형성 없이 홀로 기독교유아교육을 하게 되는 상황에서 발생한다. 비기독교 유아교육기관에서의 기독교유아교육은 교사 혼자만의 열정으로는 실현하기 어려우며 같은 기관에서 마음을 같이하는 신앙공동체의 기도와 협력이 있을 때 서로 힘이 되어주고 기독교유아교육의 실현가능성을 높인다. 그러나 유아교육 기관은 다른 교육기관에 비하여 규모가 작고 이직률이 큰 조직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 간에 모임을 갖거나 그것을 지속시키는 일이 어렵고, 이로 인해 기독교인 유아교사는 여전히 홀로 기독교유아교육을 실행하는데 갈등을 느낀다.

기독교 유아교육 기관이 아닌 곳에서는 혼자 싸워야 되니까 그게 힘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학부를 졸업했지만 그게 끝인 경우가 많아요. 제가 알기로 초등이나 그런 데는 신앙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런데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이직도 많고요. 한 교사가 어느 기관에 오래도록 머물기는 힘들어요. 특히 여자같은 경우에는 임신과 관련해서 계속 이직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유치원은 더더욱 심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믿는 사람이 들어 교회를 다니시면 이 기관을 위해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선생님도 아마 기관 운영해서 아시겠지만 그 어떤 선생님도 여긴 우리기관이야, 여긴 하나님 이 보내주셨어. 그러시는 분이 한분도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지금 11월 12월 쯤 되면 어디로 옮겨 볼까. 선생님들의 마음이 딱 데 가있기 때문에 모아지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교사C, 11월 17일, 집단면담)

(3) 학부모가 거부하는 기독교유아교육

비기독교 유아교육기관에 재직하는 기독교인 유아교사가 조직 외적인 요인으로 부터 경험하는 사회적 갈등은 기독교유아교육의 실시를 거부하는 학부모에 의한 것이다. 기독교인 유아교사가 비기독교 유아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종교에 대한 가치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자신의 입지를 인식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교실 안에서 나름대로의 기독교유아교육을 실천한다. 하지만 곧 교사가 기독교에 관해 언급한 것을 유아들을 통해 알게 된 학부모들로부터 불만 (complain)이 제기되고, 이어지는 원장님의 제지로 인해 기독교인 유아교사는 기독교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워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

애들한테 얘기하면 직설적인 기독교를 전하기가 힘들더라구 7살이 되니까 ‘우리 엄마가 성경에 있는건 틀린 것도 있대요’ 다 애가 엄마한테 일러. ‘선생님이 이런 말했대요’ 하면 엄마한테 전화와. 식사기도 했었거든. 근데 이단 엄마가 그렇게 하지 말아달래. 정통기독교의 그런 걸 싫어하는거지. 그니까 원장님이 바로 하지 말라고 그러시고. 현장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영원한 바램인거 같애. 내가 내 원을 운영하기까지는 … (교사V, 11월 24일, 개별면담)

학부모의 거부와 관련한 또 다른 갈등 사례는 기독교인 유아교사가 일반유아교육과정 중에 비기독교적인 요소들을 제거하며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 발생하였다.

기독교인 유아교사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일반 유아교육과정을 조명할 때 비진리적인 요소들을 분별해내게 되는데, 이때 그러한 내용들을 제거할 경우 주어진 교육과정들을 전달하지 않은 것이 되어 학부모나 원장으로부터 건의에 부딪히게 된다.

일반 교육과정안에 비기독교적인 교육과정이 너무나 많아. 진화론, 마법, 마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교육할 때 이 아이들에게 적절하게 걸러서 교육을 제공해야하지만, 주어진 교육과정을 전달하지 않으면 학부모나 원장에게 건의가 들어오니까.. (교사R, 11월 27일, 개별면담)

V. 결론 및 제언

1. 기독교인 유아교사의 기독교유아교육에 대한 인식 및 실태

첫째, 기독교인 유아교사의 기독교유아교육에 대한 개념을 질적분석을 통해 알아본 결과, 기독교유아교육에 대한 개념이 6가지로 분류되었다. 또한 최종 분류된 유형에 대해 빈도분석한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신앙을 갖도록 하는 것’이라고 인식하는 교사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독교세계관으로 일반교육과정을 재해석하여 가르치는 것’이라고 인식하는 교사가 많았다. 또한 ‘일반교육과정을 실시하면서 기독교적인 내용을 가르치는 것’, ‘기독교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하는 것’, ‘기독교인 유아교사가 가르치는 교육’, 그리고 기타 응답으로 ‘포괄적인 선교’, ‘인성교육’,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하는 것’, ‘기독교인으로서 해야 할 마땅한 교육이자 소명’이라고 인식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기독교유아교육에 대한 개념이 다양하게 나타난 것은 오늘날 교사들간에 기독교유아교육에 대한 개념이 일관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음을 나타낸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교육을 기독교적 신앙을 가르치는 정도의 협의적인 사고방식이나 일반적 유아교육에 종교적 요소를 단순히 가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아교육의

모든 요소들이 성경적인 세계관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김성수, 1996)이라고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신앙교육만을 기독교유아교육이라고 생각하거나 일반교육과정과는 별개로 ‘기독교적인’ 요소를 첨가하여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유아교육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많은 교사들은 현재 기독교유아교육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기독교유아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알아본 결과, 대부분의 기독교인 유아교사들은 기독교유아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이처럼 많은 수의 기독교인 유아교사들이 기독교유아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한 것은 김동춘(2008)과 이상욱(2003)의 연구와도 일치되는 바이다.

셋째, 기독교유아교육의 실천여부를 진위형 응답방식으로 알아본 결과, 과반수 이상이 기독교유아교육을 실천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앞서 이들이 기독교유아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과 비교할 때 실제로 교육현장에서 기독교유아교육을 실천하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은 더 적었다. 이는 기독교인 유아교사가 기독교유아교육이 필요함을 인식하고는 있지만 교육현장에서 기독교유아교육을 실천하는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내외적인 요인이 존재함을 드러낸다.

넷째, 기독교유아교육의 실천 정도에 대해 자기평가 하도록 한 결과,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교사는 한 명도 없었으며 보통 수준이하로 평가한 교사들이 76%로 나타났다. 이때 보통이라고 응답한 42%의 교사가 판단유보를 하였다면, 24%만이 실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독교유아교육의 실천여부에서 72%가 ‘실천한다’고 응답한 것과 비교해볼 때 상당히 저조한 수준이다. 이는 교육현장에서 기독교유아교육을 실천하고는 있지만 기독교유아교육을 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천정도에서는 자기확신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이것은 기독교유아교육에 대한 개념의 결과와 관련지어 볼 때 기독교인 유아교사들이 인식하는 기독교유아교육에 대한 개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다섯째, 기독교유아교육 관련과목 수강경험여부에 따라 기독교유아교육의 실천에 대한 자기평가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다. 이를 통해 예비기독교유아교사양성대학에서 기독교유아교육관련과목을 수강한 교사들이 그러한 과목을 수강한 경험이 없는 교사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기독교유아교육 실천에 대해 저조한 수준의 평가를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예비기독교유아교사양성대학에서는 예비기독교유아교사가 보다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기독교유아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운영을 재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2. 기독교인 유아교사가 유아교육현장에서 기독교유아교육을 실시함에 따른 교육적 갈등

기독교유아교육의 실천에 장애가 되는 교사들의 갈등요인을 탐색한 결과, 이들의 교육적 갈등유형은 크게 개인적 갈등과 사회적 갈등으로 구분되었고, 이 중 사회적 갈등은 조직 내에서 경험하는 갈등과 조직 외 요인으로부터 경험하는 갈등으로 구분되었다. 그러나 갈등유형별로 나타나는 갈등의 양상은 기독교유아교육기관과 비기독교유아교육기관에 재직 중인 기독교인 유아교사들 간에 다르게 나타났다.

먼저 기독교유아교육기관에 재직하는 기독교인 유아교사들은 기독교유아교육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조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유아교육과정을 기독교세계관으로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나름대로의 고민과 연구를 통해 일반유아교육과정을 기독교세계관으로 재해석해나가면서도 그것이 성경에 입각하여 제대로 재해석을 한 것인지에 대해 확실성을 갖지 못함으로 인해 갈등하였다. 이는 연구문제 1의 기독교유아교육의 실천정도에 대한 자기평가 결과와도 일치되는 부분이었다. 교사의 자기 수업에 대한 확신은 교사의 효능감과 관련이 있으며, 교사의 효능감은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신은수, 유영의, 박현경, 2004)을 고려할 때 기독교인 유아교사의 기독교유아교육 실시에 대한 불확실성은 기독교인 유아교사의 교직 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 더 나아가 이처럼 낮은 자기 확신은 기독교유아교육 프로그램의 수행에

긍정적 피드백을 가져 오는데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기독교인 유아교사들은 사회적 갈등을 경험하였는데, 조직 내 차원에서는 동료교사들이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을 분리하여 극단적으로 치우치거나 원장님이 기독교유아교육을 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기관운영과 행정관리 측면에서는 부정직한 방법으로 처리하는 등 신앙과 삶이 분절된 이원론적 사고가 깊이 내재된 태도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그리고 조직 외 차원에서는 기독교유아교육과정을 계획하고 구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교육자원이 매우 부족함으로 인해 기독교유아교육이 허용되는 조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유아교육을 제대로 실시할 수가 없어서 갈등을 느끼고 있었다. 이처럼 기독교유아교육을 위한 교재·교구가 부족한 현실은 선행연구에서도 여러 차례 드러난 바 있다(김윤희, 2009 ; 송윤정, 2007).

다음으로 비기독교유아교육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기독교인 유아교사들은 개인적 갈등유형에서 자신이 기독교인 유아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유아와 유아가 접하는 환경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관계된 내용을 제거해야 하는, 즉 일반유아교육현장에서 ‘종교적 색채’라 표현되는 언급을 피해야 하는 현실에 부딪히면서 갈등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사회적 갈등 중 조직 내 차원에서 기독교인 유아교사는 동일한 신앙을 가진 동료들과의 기도와 협력을 통한 연합이 없이 홀로 기독교유아교육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갈등하였다. 그리고 조직 외 요인에서 경험되는 사회적 갈등은 학부모가 기독교유아교육을 거부함으로 인해 겪게 되었다. 비기독교 유아교육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기독교인 유아교사들은 비기독교 현장에서 종교에 대한 가치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자신의 입장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드러내어놓고 공개적으로 기독교유아교육을 하기 보다는 일반교육과정을 실시하는 중에 유아들에게 성경의 진리를 적용하여 언급할 수 있다. 그러나 유아들을 통해 이를 알게 된 학부모로부터 불평이 들어올 경우, 기독교인 유아교사는 곧 원장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이어서 교사는 기독교적인 것을 수업 중에 언급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 소

극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었다. 또한 일반유아교육과정에서 비기독교적인 요소들을 제거하였을 경우에도 주어진 교육과정을 모두 실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부모의 건의에 부딪히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송윤정(2007)의 연구에 의하면 대부분의 기독교인 부모들 역시 일반 교육과정을 성경적 관점으로 재해석하거나 일반 교육과정을 있는 그대로 적용하되 기독교적 요소를 첨가하는 것이 기독교유아교육의 내용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기독교인 유아교사는 일차적으로 비진리적인 요소들을 제거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람직한 가치 또는 사실적인 근거에 의해 그러한 것들을 해석하여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처럼 기독교인 유아교사들이 기독교유아교육기관 또는 비기독교유아교육기관에서 경험하는 갈등을 탐색한 결론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예비기독교유아교사 양성대학에서는 기독교인 유아교사가 교육에서 경험하게 되는 교육적 갈등요인들을 고려하여 교사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갈등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기독교인 유아교사는 대학에서 배운 내용과 현실적 상황 간의 이질감으로 인해 갈등을 경험하게 되며, 이는 교사 자신과 다른 조직원 및 유아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독교인 유아교사가 향후 직면할 수 있는 현실적 갈등상황에 대해 미리 이해함으로써 적응력을 높이고, 각자의 현실적 상황에 적합한 기독교유아교육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조력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기독교인 유아교사의 갈등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와 진단을 바탕으로 한 교사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실제로 기독교인 유아교사이기는 하지만 유아교사양성과정에서 기독교유아교육의 실시에 대한 예비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기독교유아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기독교유아교육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있어서 혼란과 막막함을 경험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유아교사의 교사발달단계에 따른 관심과 요구가 다르듯이 기독교인 유아교사의 경우 경력에 따라 기독교유아교육을 실시함에 따른 관심과 요구 등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의 결과에서 기독교인 유아교사들이 기독교유아교육의 개념에 대해 서로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자신이 지

각하고 있는 기독교유아교육의 개념에 따라 서로 다른 교육적 요구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가진 기독교인 유아교사들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통해 이들을 조력할 교사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하여 각자의 현실적 상황에 적합한 기독교유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선행연구에서도 누적적으로 지적된 바 있지만, 기독교유아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자원 및 체계적인 기독교유아교육과정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므로 기독교세계관을 바탕으로 구성된 기독교유아교육과정의 개발이 시급히 요청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강희천 (1995). “교육에서의 갈등현상”, 『사회이론』 14, 95-120.
교육과학기술부 (2009). 『유치원 지도서 1 : 총론』. 두산.
김동춘 (2007). “기독교 유아교사의 질 향상을 위한 고찰”. 『총신대논총』 27, 26-51.
김동춘 (2008). “교사가 인식한 기독교 유아교육기관의 운영 실태의 관한 연구”. 『총신대논총』, 28, 48-87.
김미경 (2008). “4년제 예비기독교영유아교사 양성대학의 교육과정분석”. 『유아교육학논집』 12(6), 259-280.
김미희 (2005). 학원 복음화와 제자양육에 따른 기독교 교사의 자질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김성수 (1996). “기독교 유아교육의 원리”. 『고신대학교논문집』 23, 55-70.
김윤희 (2009). 교회부설 어린이집의 기독교 유아교육 운영 실태에 대한 교사의 인식 조사.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김은지 (2005). 기독교학교 교사교육 프로그램 모형연구.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김희태 (2004). “유아교사의 갈등에 대한 질적 연구”. 『유아교육학연구』 8(2), 5-34.
박병주 (2009). 기독교학교의 교사 교육과정 연구 : 두레학교, 샘물학교, 수원중앙기독교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 박애규 (2004). 기독교학교 교사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기독교학교 교사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 방승미 (2003). 기독교 유아교사의 유아를 위한 TV시청 교육에 대한 현황 및 인식.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 송윤정 (2007). 기독교인 어머니들의 기독교 유아교육에 대한 인식 및 요구 조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신원애 (2008). 유아교사를 위한 기독교적 자질 평가도구 개발. 석사학위논문. 총신
대학교.
- 신은수, 유영의, 박현경 (2004). “유아교사의 놀이에 대한 교수효능감과 놀이운영
실제 신념에 관한 도구 개발”. 『유아교육연구』 24(1), 49-64.
- 오경일 (2007). 기독교학교에서의 교사영성교육. 석사학위논문. 서울신학대학교.
- 오미영 (2008). 기독교 유아교육기관에서의 기독교 유아교육 실태에 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 이문숙 (2008). 기독교 유아교육 기관의 교사교육 프로그램 모형 개발. 석사학위논
문. 총신대학교.
- 이상욱 (2003). “규범적 현실적 조명을 통한 기독교 유아교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구”. 『진리논단』 8, 595-621.
- 이용숙, 김영천 편 (1999). 『교육에서의 질적 연구』. 서울 : 교육과학사.
- 이정미 (2008). 기독교 세계관을 지향하는 기독교초등학교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
사례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임희옥, 유혜숙, 서광일, 김정준 (2010). 『기독교세계관으로 조명한 유아교육하기』.
서울 : 창지사.
- 전미라 (2003). 기독교인 유아교사의 기독교 유아교육에 관한 인식 및 교사재교육
의 필요성 조사.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 정대현, 정옥경 (2010). “유아 대상 학원 교사들의 갈등에 대한 이해”. 『아동교육』
19(2), 211-228.
- 정유신 (2006). 중등학교의 기독교 교사를 위한 교사 교육과정 연구.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 정희영 (1998). ‘기독교 유아교육과정 개발 모색’, 총신 유아교육 학술대회, 우리나
라 기독교 유아교육기관의 진단과 발전 방향, 총신유아교육연구회.
- _____ (2004). 『기독교유아교육개론』. 서울 : 교육과학사.
- 조태영 (2004). 유아교육조직의 갈등관리. 『아동교육』 13(1), 159-168.
- 최광영 (2009). 도시교회의 성장을 위한 전도주일 프로그램 사례분석과 방안. 박사
학위논문. 총신대학교.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홍익인간 이념과 21세기 한국교육 연구』. 교육부.
- 허수진 (2009). 기독교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신앙과 직무만족도의 관계. 석사학위논
문. 총신대학교.
- Constance, C. N. (1998). Professional Development of Teachers : A Process for
Integrating Faith and Learning in Christian Schools. Paper presented at the

- Annual Meeting of the Michigan Academy of Arts, Science, and Letters.
- Denzin, N. (2006). *Sociological Methods : A Sourcebook*. (5th edition). Aldine Transaction.
- Harvey, P. & Dowson, M. (2003). *Transitional Experiences of New teachers in Christian Schools : A Case Study*.
- Mason, C. (2009). *Parents and Children*. Wilder Publications. 정선희 역(2010). 『부모와 자녀』. 서울 : 꿈을 이루는 사람들.
- May, P. R. (1988). *Confidence in the Classroom : Realistic Encouragement for Teachers*. InterVarsity Press. 정애숙 역(2008). 『어떤 교사가 될 것인가?』. 서울 :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 Strauss, A. & Corbin, J. M.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2nd ed. Thousand Oaks : Sage Publications. 신경림 역(2001). 『근거이론의 단계』. 서울 : 현문사.
- Tashakkori, A. & Teddlie, C. (1998). *Mixed Methodology : Combining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pproaches*. Thousand Oaks, Calif. : Sage. 염시창 역(2001). 『통합연구방법론』. 서울 : 학지사.
- Walsh, B. J. & Middleton. R. (1987). *Transforming vision : shaping a christian world view*. Downers Grove, Ill. : InterVarsity Press. 황영철 역(2001). 『그리스도인의 비전』. 서울 :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Abstract

An Exploratory Study of Christian Early Childhood Education(CECE) Teacher's Perception, Practices about CECE and Their Educational Conflicts

Jung, Dae-Hyun(Chongshin University)

Jung, Ock-Kyung(Chongshin University)

This study is to inquiry christian teacher's perception and practices about Christian Early Childhood Education(CECE), and explorer educational conflicts that teachers have experienced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settings.

As a result : 1) CECE teachers' perception and practices of CECE; first, CECE teachers recognized differently about the concept of CECE. Second, most of the CECE teachers recognized the necessity of CECE. Third, majority has practiced CECE. Fourth, the grade of self assessment about application was low. Fifth,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eachers who had subject related to CECE and teachers who did not have experiences related to the subject.

2) CECE teacher's educational conflicts that teachers have experienced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settings; CECE teacher's educational conflict themes were different in Christian early childhood institutes and non-Christian early childhood institutes. CECE teacher's educational conflicts in Christian early childhood institutes were "the uncertain curriculum, interpreted by Christian World View", "colleagues and directors' educational practices separated from faith

and life”, and “CECE which should be practiced without any formal curriculum and resources”. CECE teacher’s educational conflicts in non-Christian early childhood institutes were “CECE teacher who can not say that the Creator is God”, “CECE which should be practiced alone”, and “CECE rejected by parents”.

Key words : Christian early childhood education (CECE), Christian early childhood education teacher, educational conflict.